

일본 농협중앙회 개혁 추진현황

도쿄지사(2.13)

1 추진배경

- FTA, TPP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
 - 농협은 조합원 표를 무기로 무역자유화 반대 등 정치적 행사
 - TPP(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) 체결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
- 중앙집권식의 농협체제로는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발전에 한계
 -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상호경쟁과 생산성 향상 노력 필요
 -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농협의 활성화 노력 미흡

2 추진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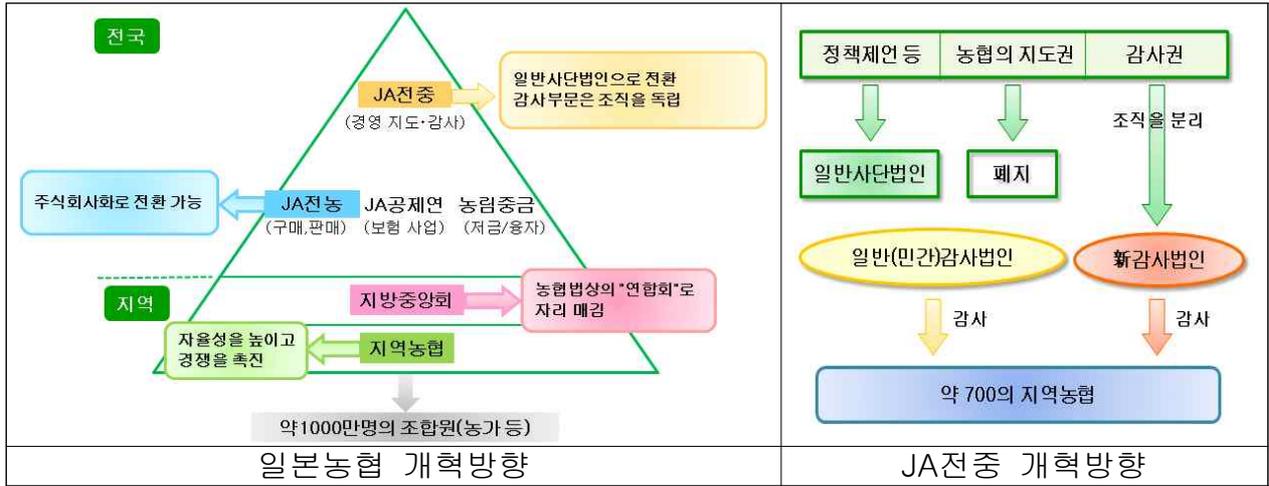
- 규제개혁회의의 농협개혁안 제출('14.5월)
- 정부·여당은 각료회의에서 농협개혁 결정('14.6월)
- 정부와 전국농협중앙회(JA전중) 개혁안 골격에 합의(15.2.9)
- 아베총리 전국농협중앙회 대한 농협법상의 지위폐지 방침 표명('15.2.12)

3 5대 핵심 포인트

조직	기능	주요내용
JA전중 (전국농협중앙회)	지도·감사	①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·지도권 폐지 * '19. 3월까지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(법적 지위 폐지)
JA전농 (전국농협연합회)	구매·판매	②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능
지역농협 (약700개)	실무	③ JA전중에 지불하는 부담금 폐지(약80억엔/년) ④ 이사의 과반은 프로(전문) 농업인 참여 ⑤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

4

농협개혁 세부내용



□ 회계감사

- 예치규모 200억엔 이상 농협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의무화
 - JA전중은 내부조직인 전국감사기구를 독립시켜 감사법인을 신설
 - 단위농협은 신설 감사법인과 민간 감사법인 중 감사를 선택
 - 신설 감사법인은 동일 농협에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모두 가능
 - * 단, 감사법인내 회계감사팀과 업무감사팀을 분리하는 조건

□ 업무감사(컨설팅)

- 농협의 판매력 강화, 6차 산업화, 수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단위 농협이 자유롭게 컨설팅 시기를 선택

□ JA전중(전국농협중앙회)

- 2019년 3월 31일까지 회원사 의견대변, 회원간의 종합조정, 정책제안 등을 행하는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
- 전환된 일반사단법인은 「JA전중(농협중앙회)」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함

□ 지자체중앙회

- 신조직은 회원의 요청에 의한 경영상담·감사, 대표기능, 종합조정기능과 같은 업무를 수행
- 2019년 3월 31일까지 JA전농(농협연합회)으로 전환
- 전환된 JA전농은 「JA전중(농협중앙회)」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함
- 지자체 중앙회에서 전환된 A전농(농협연합회)가 회원의 요청에 의한 감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사업에 종사시켜야 함

□ JA전농(전국농협연합회)

- 집하·판매를 담당하는 JA전농은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
-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제조·소매 업체, 수출과의 연계 효과 도모

□ 준조합원의 이용량 규제

- 향후 5년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이용 실태, 농협개혁의 진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시행여부 결정

□ 기타(단위농협 등)

- 지역농협으로부터 감사료 등으로 납부받는 부담금(연 80억엔, 농협당 평균 2,400만엔)을 폐지, 향후 회비제로 전환될 예정
- 쌀 수매가 인상, 농림수산성 대신 면담 요청 등 행정(정부)에 의견을 진술하는 건의권 폐지
- 이사의 과반은 인정농업인 및 농산물 판매나 경영의 프로로 구성